

제10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



**계 룡 시**  
**(농업기술센터)**

## < 검토 의견 >

### □ (501쪽) 학교 도시농업활성화 시범

- 각급 학교에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도입시켜 학생들의 도시농업 이해와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학교도시농업 활성화 시범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 그동안 학생들의 체험반응 및 정서함양 정도는 성과가 있었는지, 향후 보완 발전방안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 답변 >

- 도시농업 활성화와 어린 학생들의 농심함양을 위하여  
2014년도 용남초·염사중 2개교에 각 1천만원  
2015년도 두마초·용남중 2개교에 각 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 내 체험위주 텃밭상자 조성 및 원예활동 프로그램 교육운영으로  
학생들이 직접 상추·배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은 물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등 해당학교와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었음.
-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관내 초·중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교과연계 원예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육형  
텃밭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여, 창의적 체험활동과 인성함양에 중점을 둔  
학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임.

## 지역 계룡시 용남초 학생들이 수확의 기쁨으로 만발



데스크승인 [ 14면 ] 2015.11.12

이성진 기자 | sjl2422@ggilbo.com



용남초등학교(교장 이선미) 교정이 돼지고기 삼겹살 굽는 냄새로 진동을 했다.

용남초는 지난 11일 상자텃밭 최우수 가꿈상 수상반으로 4학년 4·5·6반을 선정, 생삼겹살을 제공, 교정에서 삼겹살 파티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삼겹살을 부상을 받은 4학년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이용, 삼겹살을 굽고 구운 삼겹살을 직접 재배한 상추 등 각종 쌈채 등에 싸먹으면서 수확의 기쁨을 맛봤다.

4학년 6반 채종원 군은 “최우수 가꿈상을 받아 마음 뿌듯하다”며 친구들과 삼겹살을 나눠 먹느라 많이 먹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한 학생도 “채소를 가꾸는 데 벌레도 잡아주고, 때맞춰 물을 주는 일도 힘들었다”며 “그 덕에 텃밭 채소도 잘 자라고, 안전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어서 기뻐다”고 말했다.

이날 6학년 3반, 5학년 1반, 4반은 우수 가꿈반으로 선정, 굴 한 박스를 부상으로 받았다.

이선미 교장은 “우리 땅에서 직접 기른 신선한 농산물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알고,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데 늘 감사함을 갖자”고 학생들에게 효를 강조했다.

## < 검토 의견 >

### □ (503쪽) 녹색도시 빗물활용 사업

- 빗물을 활용하여 텃밭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상자보급비 1,400만원과 시범지원비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는데,
  - 우리지역의 연간 강우량 및 빗물의 저장용량, 경작할 수 있는 텃밭면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 답변 >

- 우리시 연평균 강우량은 1,265mm이며, 올해는 가뭄으로 인해 12월 14일 현재 872mm로 연평균 강우량 대비 69% 수준임.
- 본 사업으로 지원될 텃밭상자의 빗물 저장용량은 0.6톤이며 평상시 저장탱크에 빗물을 저장하여 작물에 공급함으로써, 용수 절약은 물론 가뭄으로 인한 작물의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음.
- 텃밭상자 1개의 면적은 약 0.5㎡이며, 개소당 지원되는 텃밭상자는 15개로 7.5㎡(2.3평)임.
- 내년도에 관내 복지시설 4개소와 공공기관 7개소 등 총 11개소의 옥상 또는 유휴공간에 시범설치, 텃밭채소 등을 재배함으로써 복지시설 어르신들의 정서적 치유농업은 물론 생활 속의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 검토 의견 〉

### □ (504쪽) 식용곤충 사육기술 특화사업 육성

- 식용곤충의 생산, 가공을 통해 체험관광으로 연계시켜 6차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식용곤충 사육기술 특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 식용곤충은 무엇이며, 가공과 판매는 어떤방식으로 할것인지,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한국인의 음식문화와의 연관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 답변 〉

- 식용곤충은 주로 곤충을 음식으로 활용하는 식량자원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메뚜기, 번데기 등을 식용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도 약재로 소개되어 있음.
- 최근 식용곤충이 고단백질로서 영양학적 가치가 높고, 간계통의 질병이나 암 치료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어 새로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미래 식량자원으로도 대두되고 있음.
- 농가에서는 생굼벥이 또는 건조굼벥이, 엑기스 등으로 가공하여 약재상 또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음.
- 내년도에는 2개소를 선정, 개소당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육시설·자가 톱밥발효실·가공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이미 추진한 타시군 사례를 접목하여 경영비 대비 소득이 높은 흰점박이 꽃무지를 주생산 계획임.
- 또한, 사육시설을 활용 장수풍뎅이·사슴벌레 등의 병행 사육으로 유치원·초등학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하는 등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산업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함.